

서울 마포구

‘천의 얼굴’ 정성호, 연기·진행 등으로 활동범위 넓히며 인기 증명

정성호는 1993년 ‘IF’라는 그룹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했다. 그러나 앨범 재킷 사진을 찍던 날 “머리 좀 단정하게 깎으라”는 매니저의 말에 싫다고 반항했다가 가수로서 데뷔가 불발됐다.

이후 1998년 MBC 개그맨 공채 9기에 합격한 정성호는 ‘코미디쇼 웃으면 복이와요’ ‘웃는 DAY’ 등에 출연했다. 그러나 한동안 무명으로 지내다 2006년 ‘개그야’의 코너 ‘주연아’에서 락스타 김주연을 가르치는 과외선생님으로 출연해 한석규 성대모사와 일명 ‘버퍼링 개그’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해 연말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시트콤 부문 남자 최우수상을 받으며 인기를 증명했다.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유명해진 정성호는 2017년 11월 종영된 tvN ‘SNL코리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가수 임재범,



방송리오펠리스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3-4

수영선수 박태환, 영화배우 성룡, 요리 전문가 백종원 등으로 변신했다. 이 덕분에 ‘천의 얼굴’ ‘인간 복사기’ 등의 별명과 많은 인기를 얻으며 시청자들의 많

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임재범 모창은 그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계기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정성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임재범 형님 흉내를 내면서 전성기를 맞았다”며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임재범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성호는 임재범과의 일화도 공개했다. 임재범 성대모사를 녹화한 뒤 방송이 나가기 전, 담당 PD가 정성호에게 당사자 임재범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임재범은 영국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성대모사는 허락을 받지 못한 채 방송이 그대로 송출됐고 이후 크게 화제가 되면서 임재범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정성호는 “임재범 씨에게 전화가 왔을 때 무릎 꿇고 받았다”며 “임재범 씨가 과거 ‘주연아’의 팬이어서 허락해주신다고

했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후 정성호는 각종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본인의 장기간 성대모사를 이용해 영화 ‘국제시장’ 속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드라마 OCN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에선 DJ 김기덕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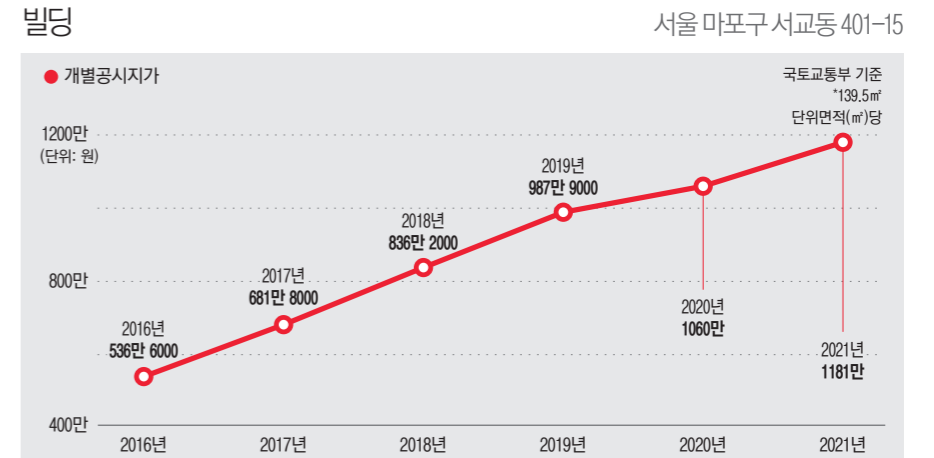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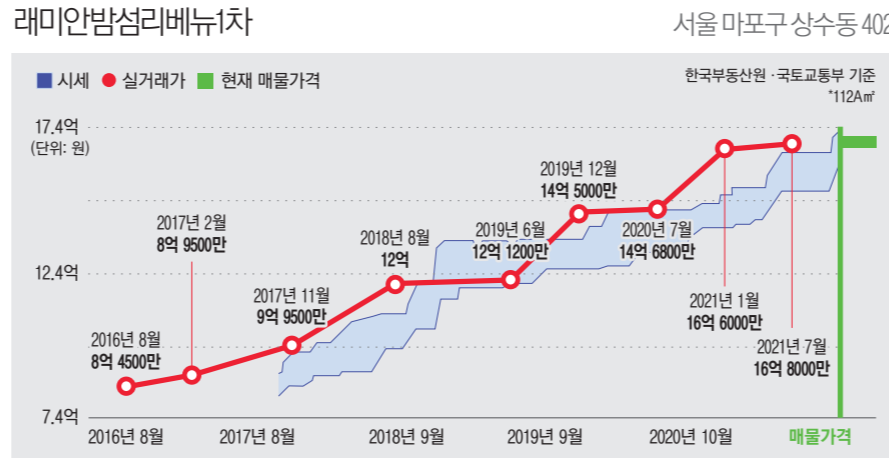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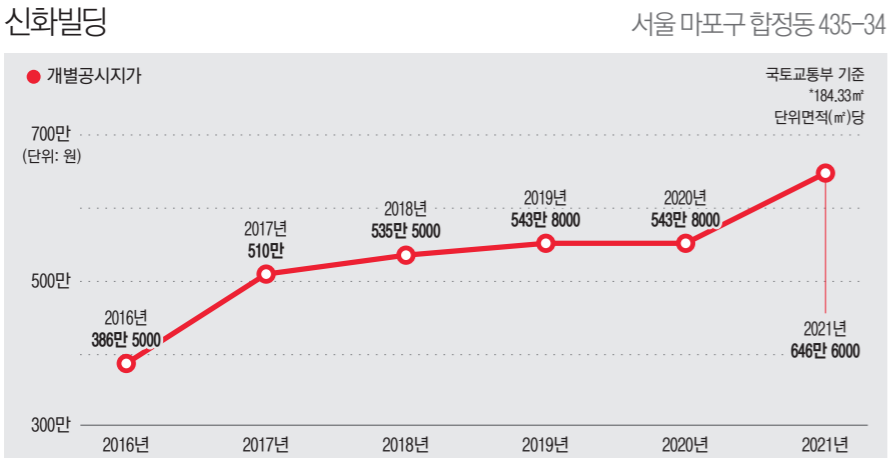
정성호는 활동 범위를 넓혀 2017년 말~2018년 초에 걸쳐 방영된 KBS 월화드라마 ‘저글러스’에 YB 영상사업부 제작부장 공유 역을 맡아 배우로 출연해 깜짝 변신했다. 2018년 말에는 MBC 드라마 ‘배드파트너’에 특별출연해 열정적인 중계로 관중의 몰입을 끌어내는 종합격투기 무대 해설자 역할을 맡아 주목받았다.

그는 라디오 SBS 러브FM ‘정성호, 유혜영의 세상의 모든 소리’ 등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으며 이밖에도 KBS2 ‘영화가

좋다, TV조선 ‘끝까지 간다, JTBC ‘도민’의 승부 이기면 쓴다, MBN ‘극한 고민 상담소-나 어떡해’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정성호는 2009년 경매를 씨와 결혼했는데 이 부부는 최근 SBS FIL의 새 프로그램 ‘대한민국 치킨대전’의 홍보 영상에 출연했다.

‘대한민국 치킨대전’은 K-치킨 세계화 대국민 프로젝트다. 전국의 요리고수들이 K-치킨의 한 획을 그기 위해 치킨 레시피 개발을 두고 요리 서바이벌을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대한민국 치킨대전’은 10월 SBS FIL과 MBN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이동원 기자



남의조

현)투테크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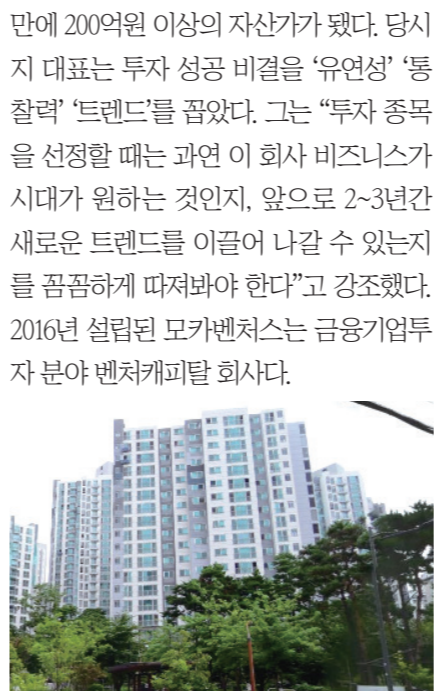
남의조 투테크 대표이사는 창업 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면서 리본 납부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인쇄된 바코드가 지워지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테크 창업을 결심했다. 2003년 설립한 투테크는 바코드 라벨 및 레이저 라벨 프린터 전문 기업으로 기존의 바코드 라벨이 지워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레이저 기술과 인쇄 기술을 융합하며 인쇄산업에 한 획을 그었다. 2005년 레이저 바코드 프린터 TTE-72FR를 개발한 데 이어 이듬해 지워지지 않는 바코드 라벨 특



지영성

현)모카벤처스 대표

지영성 모카벤처스 대표는 대학 전공과 무관한 금융계에 뛰어들어 자산가가 된 인물이다. 그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사로잡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2015년 3월 전업투자자로 나섰고 자신만의 투자방식으로 주식투자 10년



양지영

현)치과의정석치과의원 원장

양지영 치과의정석치과의원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임상교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서 치과교정과 고급교정과정,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에서 치과교정과 최신비발치교정학 과정,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교정과 미니레지던시 과정 등을 수료했다. 그는 일본 아이치기쿠인대학교 임플란트학과 협력의사, 일본 구강임플란트학회 아이치임플란트센터 협력의사, KDI 한국심는치아연구회 총무이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 착공 주민들 생활공간으로 탈바꿈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구는 구의2동 63-7번지 외 2필지 일대에 동주민센터, 도서관, 가족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 구의2동 복합청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은 오래된 동 청사를 신축해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복리 증진도 함께 추구하고자 추진됐다.

신청사는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6139.26㎡의 규모로 구의2동 현청사 및 공영주차장의 기존부지에 추가 매입부지를 포함한 총 1506.7㎡ 대지에 지어진다.

지하 1~3층에는 총 83대가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1층에는 도서관, 2층에는 동주민센터, 3, 4층에는 공동육아방과 교육장 등을 갖춘 가족센터, 5층에는 246석의 대강당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달 초 본격적으로 착공한 복합청사는 지난해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녹색건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의 예비인증 완료로 마쳐 2023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의2동은 2만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임에도 문화,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문화·복지·행정이 어우러진 주민생활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18획지 공개매각 추진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가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잔여 필지 18획지를 일반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임피지구는 만경강과 봉황산 등 자연자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총 28획지(1만5079.5㎡)로 조성됐다. 지난달 1차 공개매각을 추진해 현재까지 10필지가 매각됐으며 이번에 잔여 필지인 18획지에 대해 재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대상지인 단독주택 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전원주



택기숙사 등의 건립이 가능하며 매각 예정가격은 1획지당 6088만5000원~8147만 2000원 사이로 면적은 451~611㎡이다. 매각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전자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며 공개경쟁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한다.

입찰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내달 8일에 개찰한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실명확인 절차로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호원대학교와 (구)임피역이 위치하며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졌다”면서 “토지구입자금 등 금융지원도 가능해 전원생활을 꿈꾸는 임주민들의 최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흑석2·신설1·금호23구역 일부 주민 재개발 반대

서울특별시 동작·성동·동대문구

흑석2·신설1·금호23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정부와 시의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구역 중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은 1차 후보지, 금호23구역은 2차 후보지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에서는 투기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이전투구의 장이 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며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LH, SH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LH, SH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